

사랑·그리움·여자의 인생...그녀의 노래는 혼자 흘린 눈물

이미지의 주요 디스코그래피

열아홉순정 (1959년)
 아마추어 노래대회 '메트로타리' 1등, 작곡가 나화림의 눈에 띄어 가수 데뷔

동백아가씨 (1964년)
 영화 '동백아가씨'의 주제가로, 한국 최초 100만 장 판매고 추징, 가요프로그램 35주간 1위 기록, '엘' 이후로 방송금지, 1967년 해금

섬마을 선생님 (1966년)
 콤비로 활동한 작곡가 박춘석의 작품, '혹산도 아가씨'(1965) 등 이미지의 노래 800여 곡을 박춘석이 작곡

엘리지의 여왕 (1967년)
 박춘석 작곡 '엘리지의 여왕' 타이틀곡, 이미지를 대표하는 수식어가 될, 자전적 이야기를 다룬 영화 '엘리지의 여왕' 개봉

기러기 아빠 (1969년)
 동명 영화의 주제가, 이미지 스스로 3대 히트곡으로 꼽는 노래 중 하나, 1971년 제1회 백성예술대상 영화 부문 주제가상, '1000곡 돌파 기념 리사이틀' 진행

아씨 (1970년)
 TBC 드라마 '아씨'의 주제가, MBC '10대 가수가요제' 최고 인기가수

여로 (1972년)
 KBS 드라마 '여로'의 주제가, MBC '10대 가수가요제' 10대 가수상

노래는 나의 인생 (1990년)
 데뷔 30주년 기념 앨범 타이틀곡, '황포돛대' '여자의 인생' 등 히트곡 수록

'열아홉순정'과 꼭 같았던 첫사랑 왜색 논란에 금지된 '동백아가씨' 이혼·재혼...굴곡진 여인의 삶도 대중들의 심금을 울린 노래로 승화

"데뷔 이후 현재까지 가요계의 여왕으로 군림하고 있는 그녀는 그러나 어쩌면 가장 고독한 여인이기도 모른다. 그녀의 무수한 슬픈 어린 노래들처럼 그녀의 인생은 슬픔을 혼자 씹어야 했다. 세상에 알려진 것처럼 데뷔 전까지 헤아리기 힘든 고생을 했고 지금도 본 인만이 아는 고독과 슬픔을 안고 있다." 1973년 4월12일자 동아일보는 이미지에 대해 이 같이 썼다. 인생길을 걸어오면서 자녀야 했던 아픔과 슬픔을 2000곡이 넘는 노래에 담아낸 그는 지금, 더욱 애잔한 감성으로 60년의 음악인생을 돌아보고 있다.

● '열아홉순정'

1941년 10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태어난 그는 2년 뒤 아버지가 징용으로 끌려가면서 가난을 맞았다. 1945년 어머니 품을 떠난 이후 외조모 아래서 자라나 1950년대 말 가수 고복수의 가요학원이 개최한 콩쿠르와 H LKZ TV의 노래자랑대회에서 1위를 차지하며 재능을 발휘했다. 낮에는 회사, 밤에는 가요학원을 다니며 키운 실력 덕분이었다. 이를 계기로 1959년 18세의 나이에 작곡가 나화림에게 발탁됐다. '보기만 하여도 울림/생각만 하여도 울림/수줍은 열아홉살 유트는/첫사랑'(열아홉순정)을 이듬해 만나 실제로 열아홉살에 결혼했다.

● '동백아가씨'

'열아홉순정' 이후 이렇다 할 히트곡을 내지 못했던 그는 1964년 동아방송 드라마를 원작 삼아 김기 감독이 신성일과 엄앵란을 내세워 만든 동명의 영화에 목소리를 얹었다. 노래를 쓴 작곡가 백영호가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나오기 힘들 것"(위 신문)이라고 평가할 만큼 이미지는 확고한 위상에 군였다.

하지만 노래는 1965년부터 '왜색(倭色)'이라는 이유로 전파를 탈 수 없었다. 1968년에는 공연과 앨범 제작까지 금지 당했다. 1965년 한일협정을 반대하는 여론을 잠재우려 '왜색 근절'을 내세운 정치적 노림수가 작용했다는 시선이 나왔다. 임신과 감기로 작



1994년 KBS 청사특집 '빅쇼' 무대에 함께 오른 이미지(왼쪽)와 페티김. 노래로 국민을 위로해온 두 명의 '살아있는 전설'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노래하고 있다. 사진제공 | KBS

결계 노래를 녹음했지만 국내 무대에서 부를 수 없었던 그는 1966년 여름 일본으로 날아가 이를 선보이며 아쉬움을 달랬다.

● '섬마을 선생님' 그리고 '기러기아빠'

그는 '음악동지'이자 스승인 작곡가 박춘석과 1965년 KBS 라디오 드라마 주제가인 '진도아리랑'으로 첫 호흡을 맞췄다. 1965년 "춘남 같은 가수"로 불렸던 박춘석은 1965년 육영수 여사의 초청으로 혹산도 어린이들이 군함을 타고 서울 구경을 왔다는 보도를 모티브 삼아 '혹산도 아가씨'를 이미지에 선사했다. 한창 인기를 누리며 바쁘던 그가 연습도 없이 바로 녹음을 하는 모습에서 박춘석은 천재성을 발견했다.

이듬해 '섬마을 선생님'에 이어 '기러기아빠'로 박춘석과 함께 한 그는 그러나 이미지도 금지 당했다. 이 때문에 1970년대 중반 은퇴를 고민했다. 다양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해금투쟁'을 벌인 박춘석(1993년 12월6일자 동아일보)으로부터 위로를 얻었다.

● '아씨' 그리고 '여자의 인생'

이미지는 이혼과 재혼 등 "가정생활이 평탄치만은 못했던 한 인간"으로서 "애로와 고통이 많았다"면서 "그러나 한 가정의 아내와

어머니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고 훗날 털어놓았다.(1989년 1월24일자 동아일보) 어린 시절을 함께 할 수 없었던 아버지와 가족을 그리워하며 '엄마구름 애기구름 정답게 가는데/아빠는 어디 갔나 어디서 살고 있나'(기러기아빠)라고 노래하기도 했다. 그 애타는 마음은 결국 1966년 헤어졌던 엄마를 21년 만에 만나게 해주었다.

'뽀족새 구슬피 울어대던 길/한 세상 다하여 돌아가는 길/저무는 하늘가에 노을이 붉구나'(아씨) 혹은 '참을 수가 없도록 이 가슴이 아파도/(중략)/헤아릴 수 없는 설움 혼자 지닌 채/(중략)/비탈진 인생길을 허덕이면서/아 참아야 한다'고 '여자의 인생'을 애처롭게 노래한 그는 슬픔 가득한 정서로 대중의 공감을 자아냈다. "그 여자의 노래를 들으면 살고 싶은 욕망이 생긴다"던 화가 천경자의 언급(1977년 10월1일자 동아일보)도 과언이 아니었다.

● '내 노래, 내 사랑 그대에게'

하지만 '왜색'과 '뽀족'의 오해와 비하의 적지 않은 말들도 그를 오랜 세월 괴롭혔다. 이는 1987년 '동백아가씨' 등이 해금된 이후 1994년 효성여대 작곡과 박종문 교수가 클래식 음악 전문지 '낭만음악'을 통해 '이미지론'

을 펼치기까지 이어졌다. 박 교수는 이미지의 목소리가 "가늘면서도 비단결 같이 고운 소리결을 지닌, 한 세기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미성"이라며, 트로트가 "음계계상 일본음악이지만 가장양식, 가사, 선율, 화성 등 여러 면에서 한국화를 이루어냈고, 이를 부를 때 우리의 민요와 판소리 같은 정통성악의 가창양식을 도입했다"(1994년 1월8일자 한겨레)고 평가했다.

음악인생 60년에 접어들어 그는 이제 '아팠던 순간조차도/황혼길에 붉게 물들면/내 노래가 피어나는/향기로은 꽃발 갈아라'라고 노래한다. 그런 그를 두고 1973년 4월12일자 동아일보는 "상승가수 에디트 피아쁘나 일세기에 한 번 나온다는 일본의 미조라 히바리 같이 빼어난 고난을 이겨낸 불멸의 가수"라고 가리켰다.

두 가수가 전장에 지친 이들을 위로하며 대중에게 다가간 것처럼 이미지는 1960년대 이후 굴곡진 현실을 살아가야 했던 수많은 이들과 함께 했다. '나 그대와 함께 노래하며/여기 있으니/난 행복해요/감사하여라'라며 '내 노래'를 '그대에게' 다시 보낼 수 있는 것도 그런 공감과 위로의 소통으로써 가능한 일이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편집 | 안도영 기자 do02@donga.com

사진 촬영 · 생활 문화 할인 APP 제공하는 신개념 감성 포토부스

무엇이든 가능한 셀피스타
 네트사진 및 명함, 여권, 비자 등 다양한 사진촬영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휴대폰 속 사진을 인화할 수 있는 휴대폰 인화 기능 또한 추가되었다.

소비자를 위한 스마트 기능
 한번 촬영으로 끝나는 아이템이 아니다. 다양한 콘셉트 연출이 가능하며, 촬영한 사진을 바로 카카오톡으로 전송 SNS 공유 할 수 있다.

창업자를 위한 스마트 기능
 네트워크망을 구축하여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매출확인 및 기기 상태 확인, 원격 개점과 폐점이 가능하며 업그레이드 및 A/S 또한 용이하다.

20년 경력의 체계화된 시스템
 체계화된 본사 시스템으로 영업팀 디자인팀 기획팀 관리팀 부동산팀으로 나누어져 매출증대 및 고객의 니즈를 충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SNS 바이럴 마케팅 지원
 지속적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 활동으로 셀피스타 홍보를 하고 있다.

특히 셀피스타 인스타그램 계정은 바이럴 마케팅 이의 실시간으로 고객들과 소통하며 다이렉트 제보와 업데이트 정보 그리고 이벤트 홍보 등 매일매일 새로운 소식들을 업로드하여 셀피스타 홍보 역할을 톡톡히 담당하고 있다.

그 외에도 셀피스타 정면 좌측에 32인치 모니터가 부착되어 주변 상권 광고 및 이벤트가 진행된다.

세계로 뻗어 나가는 셀피스타
 셀피스타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각국의 언어를 지원하고 있다. 11월에는 브라질 수주를 따내어 포르투갈어 제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SEJIN LT | SelfieStar

파트너·제휴문의 : 1644-2063

카카오톡 문의 : sjit0742